

인도네시아 양식업에 26조 루피아 투자 예정

□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양식 어업 분야에 26조 루피아를 투자할 방침이며, 이는 올해 전망보다 8% 높은 수치임.
- 지난 31일 비즈니스 인도네시아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사기업은 물론 국영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자금을 충당할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의 양식·수산물 국장은 “일반 물고기와 새우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메기 양식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고 전함.
- 또한, 그에 따르면 수산물 가공 시설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특히 노르웨이와 중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짐.
- 정부는 올해 양식 어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24조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9월 말 시점 이 분야 투자액은 약 19조 루피아에 달함.
- 2016년 양식 어업 분야의 수출량 목표는 올해 전망보다 11% 증가한 2,100만 톤이며, 올해 수출량은 1,9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임.
- 한편 수시 뿌지아스뚜띠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은 2016년 국가 예산안으로 30조 루피아의 예산을 배정받을 것이라고 지난 5월 언급한 바 있어 올해 예산은 10조 루피아였으나 현재 추진 중인 해양인프라 확충 사업을 위해서는 30조 루피아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수시 장관은 만약 해양수산부가 내년에 30조 루피아를 예산으로 받게 된다면, 양식업을 비롯하여 앞서 목표로 한 수산물 생산성을 5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와 관련 수시 장관은 남부 술라웨시 해안가에 두 개의 대규모 양식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

□ 시사점

인도네시아 식량 자급자족을 달성하기 위해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또한, 수산물은 모든 품목이 쿼터 대상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어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 및 시장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자료 : COOL INDONESIA(2015-11-3)